

2026년 8월 3일 글로벌 마켓 브리핑: 극심한 변동성 속의 시그널 탐색

한국 증시 (KOREA)

KOSPI —
6,595.45 (0.00%)

KOSDAQ →
719.76 (0.00%)

핵심 요약

핵심 요약: 4일간 2,164pt 요동. 예탁금 20조 원 증발에 따른 유동성 가뭄과 삼성전자(시총 51%) 쏠림 현상 심화.

미국 증시 (US)

DOW ↑
52,485.03 (+2.64%)

NASDAQ ↑
25,373.85 (+1.00%)

핵심 요약

핵심 요약: 기술주 중심의 선별적 회복(아마존 +15.3% vs 테슬라 -37%). 서학개미 49조 원 손실 후 대표지수 ETF로 피신.

매크로 환경 (FIC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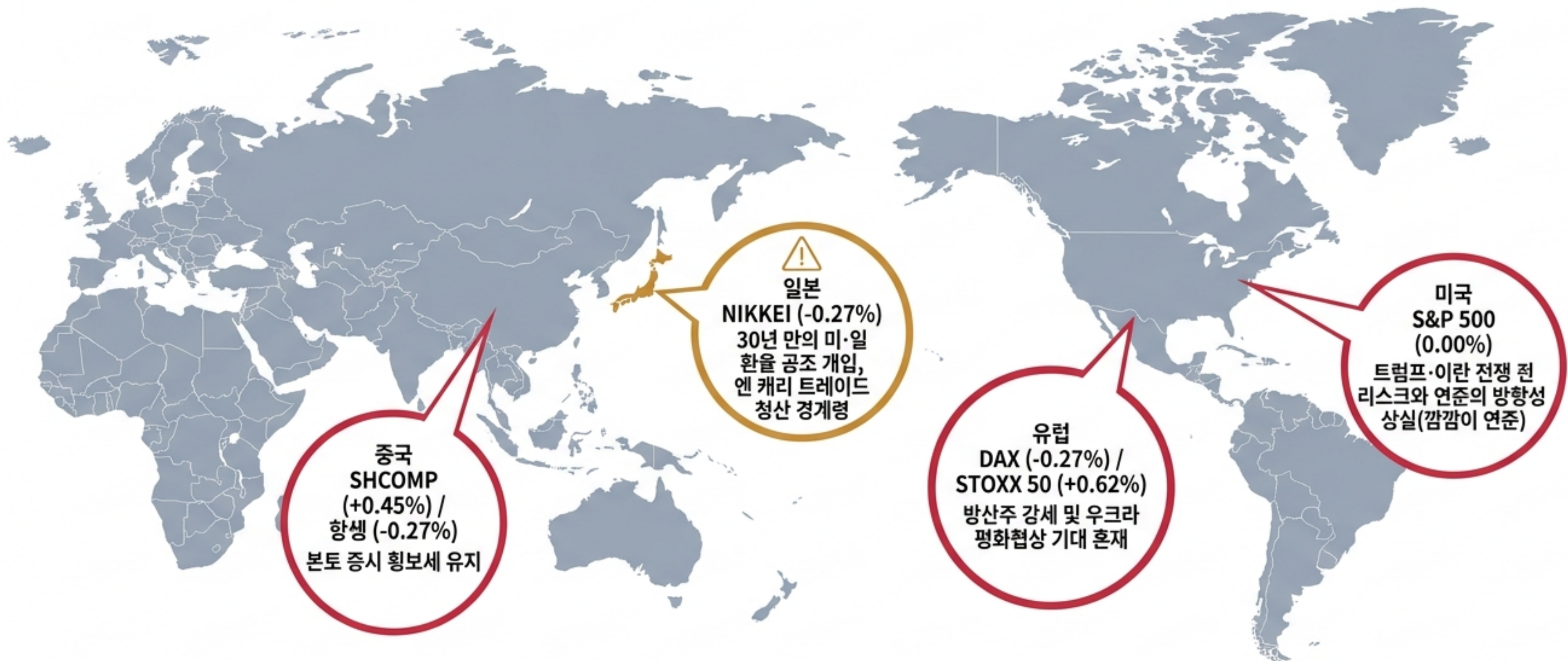
미 국채 10Y ↑
4.673% (+5bp)

원·달러
1,442.09원

핵심 요약

핵심 요약: 30년 만의 미·일 환율 공조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. 중동 리스크발 유가 상승 압력.

글로벌 리스크 맵: 깜깜이 연준과 지정학적 긴장의 결합



Key Takeaway: AI·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나, 엔화 강세로 인한 유동성 축소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.

FICC 시그널 매트릭스: 안전자산 선호 vs 인플레이션 압력의 줄다리기



금리
(미 국채 10Y)

4.673%
(+5bp)

Signal:

FOMC 매파 기조에
따른 금리 상승 압력
지속



외환
(원/달러)

1,442.09원
(-5.30원)

Signal:

달러 약세(DXY 0.5) 속
원화 강세 전환



원자재
(WTI 원유)

\$84.67
(+\$2.62)

Signal:

중동 리스크 재발로
산업계 원가 압박 심화



안전자산
(금)

\$103,000
(+\$18)

Signal:

온스당 4000달러 선
방어, 안전자산 선호
지속이나 금리 상승이
하방 압력으로 작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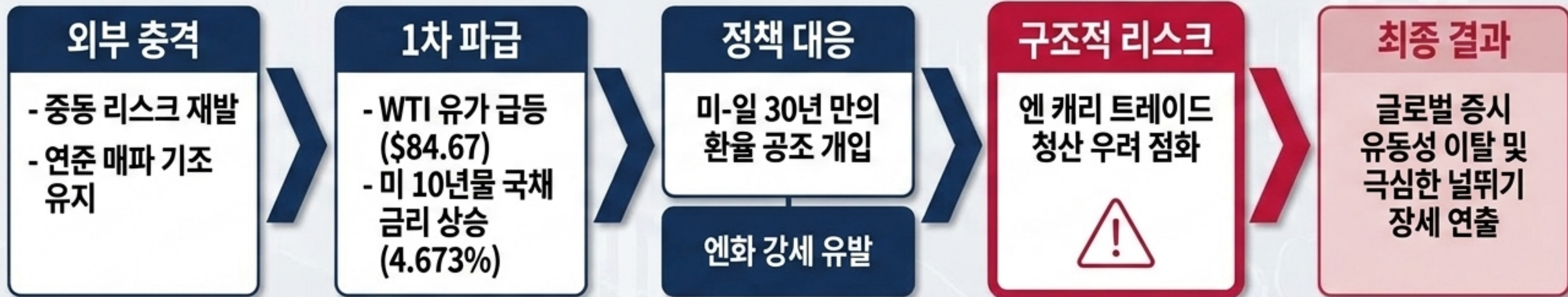
대체자산
(비트코인)

\$103,000
(+\$1,240)

Signal:

ETF 순유입 지속하며
금과 동조화

매크로 도미노 이펙트: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 변동성으로 전이되는 경로



미국 증시: 지수 상승 이면에 숨겨진 극단적 개별 종목 장세

최악의 7월을 보낸 나스닥, 기술주 회복 기대감으로 반등 시도 | DOW 52,485.03 (+2.64%) / NASDAQ 25,373.85 (+1.00%)

Green Zone: 훈풍과 기대

	아마존 (Amazon)	+15.3% 급등
	스페이스X (SpaceX)	첫 실적 발표 돌입 (주가 100달러 방어 여부 주목)
	섹터 흐름	부동산(+7.42%), 에너지(+2.00%) 주도 상승

Red Zone: 폭락과 경고

	테슬라 (Tesla)	-37% 급락 (나스닥 고수 3인의 비추 종목)
	고위험 종목 투매	로블록스 -26.8%, 레딧 -21% 급락

결론: 지수는 방어되었으나, 실적과 펀더멘털에 따라 종목 간 극심한 양극화 진행 중 (슈퍼위크 실적 발표에 시장 촉각).

서학개미의 딜레마: 49조 원 손실과 '대표지수 ETF'로의 대피

두 달간 49조 원(약 38억 달러) 손실 추정
원인: 순매수 톱10 중 절반이 레버리지 및 반도체 몰빵 투자.

투자 패턴의 구조적 변화

과거 행동: 고위험/고수익 추구

- 반도체 개별주 집중
- 3배 레버리지 ETF 몰빵

→ 7월 폭락장에서 직격탄 맞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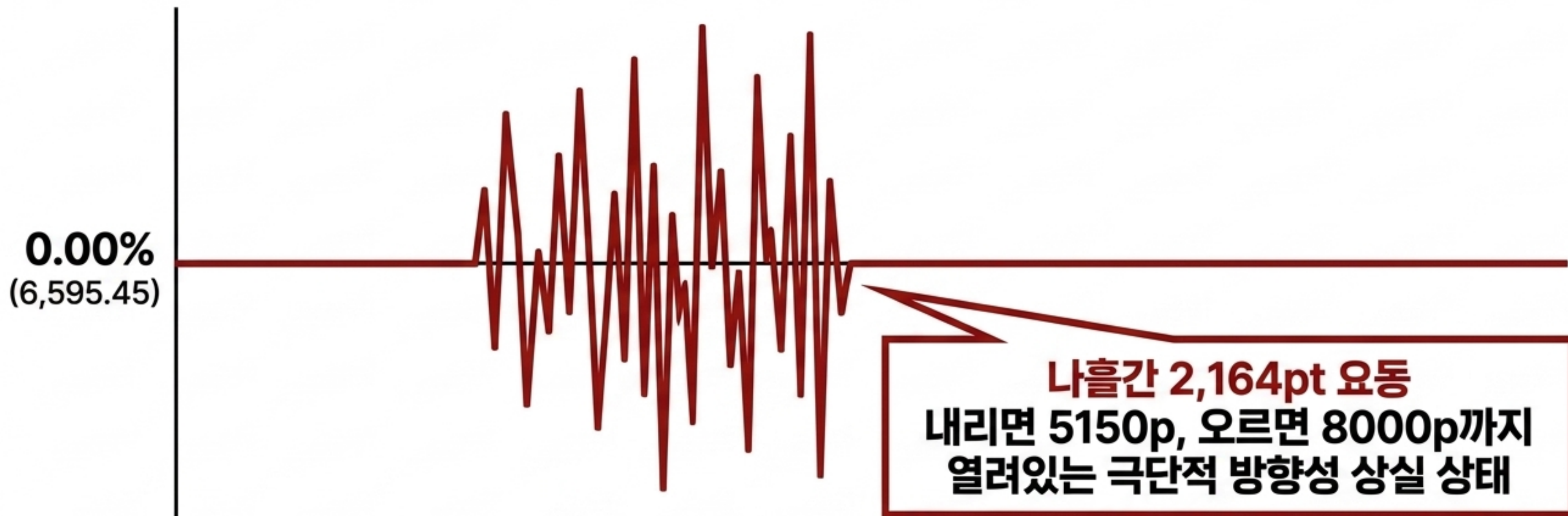
국장 피로감 + 미장 변동성 회피

현재 대응: 방어 및 퀄리티 비행

- 미국 대표지수 ETF 편입
- 나스닥100 커버드콜(콜옵션 매도) 이동

전술적 시사점: 단순 저가 매수보다 수익률 방어와 변동성 헷지(Hedge)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.

코스피의 역설: 0.00% 보합이 숨기고 있는 전쟁 같은 4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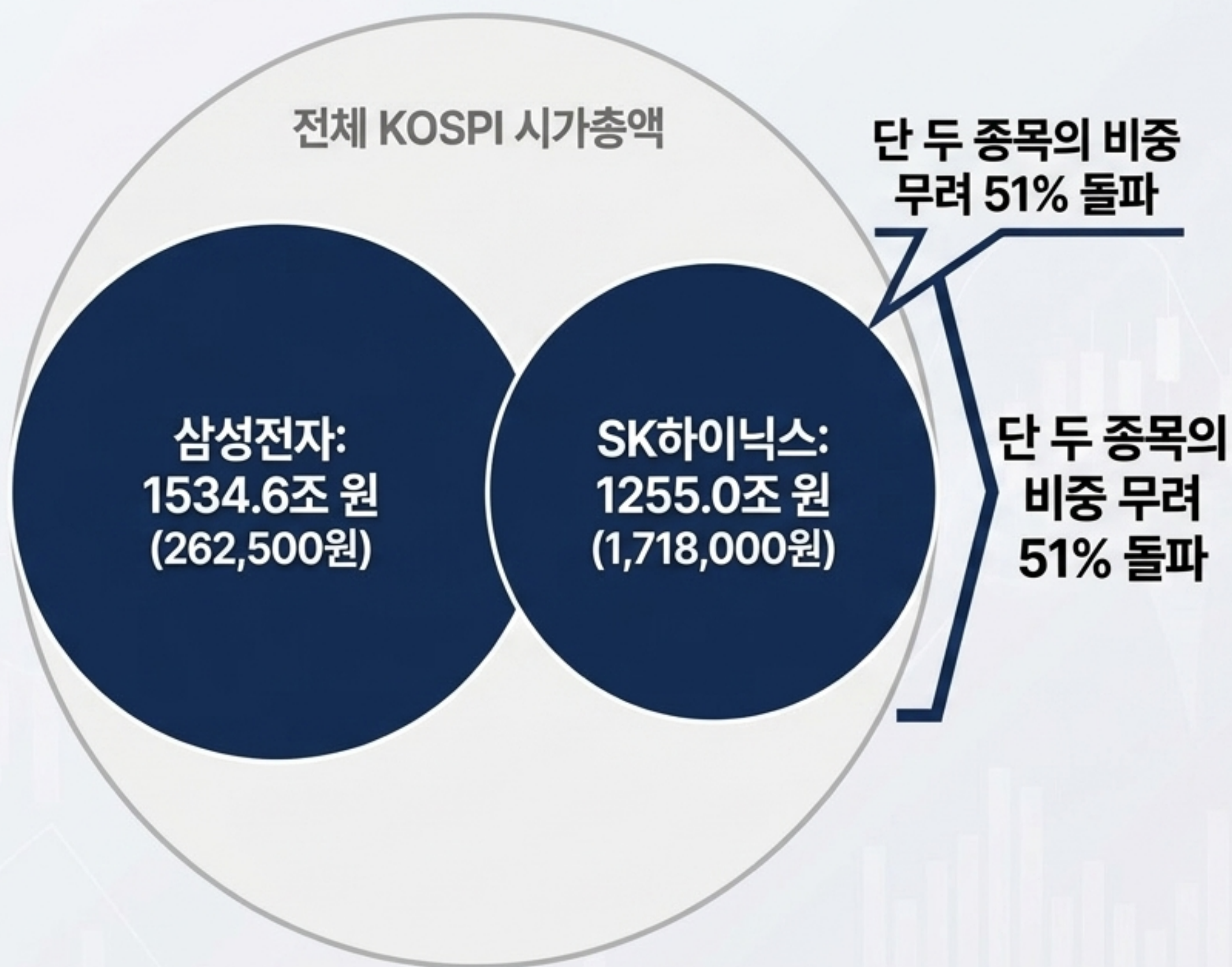
긍정적 펀더멘털

- 역대 2위 기록한 7월 수출 실적
- 에픽AI가 지목한 역대급 저평가 구간

부정적 현실

- 매크로 충격에 가장 취약한 유동성 구조
-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'부동산·증시 직접 챙긴다'고 발표할 정도의 패닉 장세

삼전닉스피의 중력: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기형적 시총 집중도



시장 왜곡 메커니즘 (Analysis)

- **현상:** 거시적 악재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 대장주를 투매할 경우,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코스피 지수 전체가 급락하는 지수 왜곡 현상 발생.
- **결과:** 하락장에서는 대장주가 지수를 끌어내리고, 반등장에서는 나머지 중소형주가 소외되는 쏠림 현상 현상 극대화.

증시 유동성 가뭄: 한 달 만에 증발해 버린 20조 원의 방어벽

7월 초 투자자
예탁금 수준

-20조 원
(한 달 만에 급감한
대기 자금)

(한달 만에
급감한 대기 자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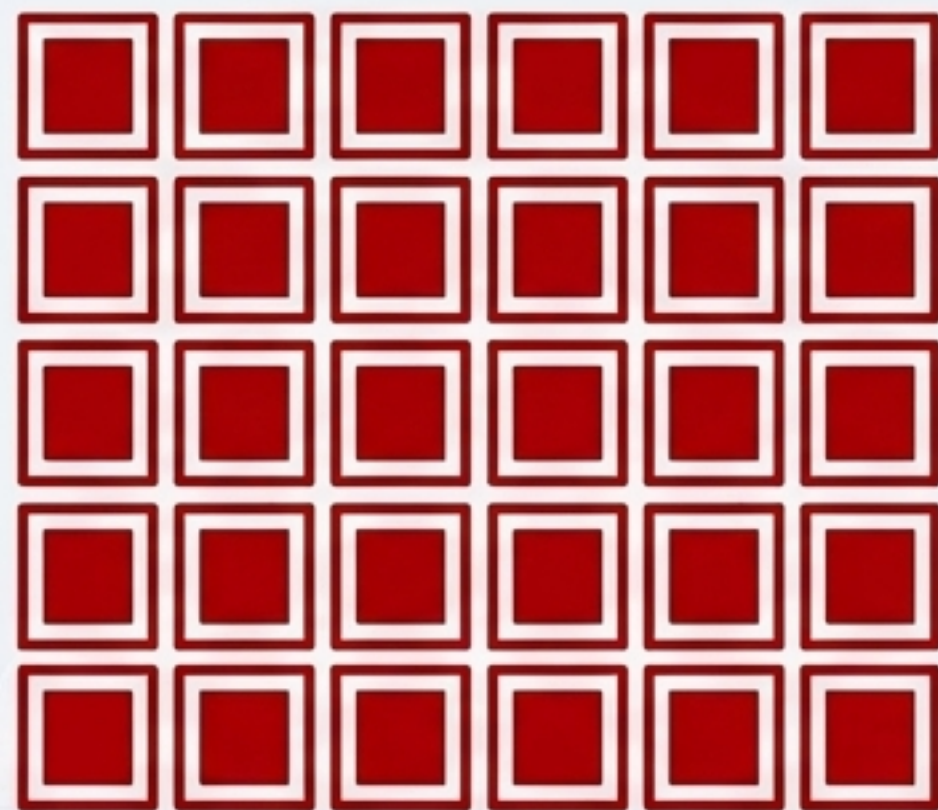
현재 바닥을 드러낸
증시 대기 자금
증시 대기 자금

시장 파급력 (Market Impact)

- 대기 자금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엔 캐리 청산 우려 등 외부 충격 발생.
- 저가 매수(Buy the dip)를 받아줄 개인 투자자의 현금 여력 부족 (미국 주식에서 49조 원 손실 등으로 자금 묶임).
- 결론: 작은 매도 물량에도 지수가 크게 밀리는 얇은 호가창(Thin Market) 리스크 극대화.

코스닥 상장폐지 리스크: 7월 대폭락의 후폭풍

지수 표면 방어 중: KOSDAQ 719.76 (+0.00%)



시가총액 요건
미달 기업
30곳 속출

중소형주 투심 냉각

시총 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우려가 확산되며,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음. 내부 부실 심화 상태.

투자 전략 및 경고

펀더멘털이 검증되지 않은 한계 기업에 대한 묻지마 저가 매수는 치명적 리스크 동반. 철저한 옥석 가리기 필수.

3대 핵심 관전 포인트: 극단적 변동성 장세의 구조적 이해

[1] 한국 (KOREA) - 유동성 위축과 쏠림

현상: 예탁금 20조 급감,
삼전/하이닉스 비중 51%.

결과: 펀더멘털(저평가/수출
호조)과 무관하게 외부 충격에
극도로 취약한 얇은 시장.



[2] 미국 (US) - 기술주 중심 선별적 회복

현상: 테슬라 폭락 vs 아마존
급등. 서학개미 49조 손실.

결과: 레버리지 시대의 종언.
극단적 종목 장세 속에서
대표지수 ETF로의 퀄리티
비행(Flight to Quality).



[3] 매크로 (FICC) - 금리/달러 압박과 대체자산 부상

현상: 10년물 4.67%, 엔 캐리
청산 우려.

결과: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을
헷지하기 위해 금(\$103,000),
비트코인(\$103,000) 등
대체자산으로 자금 유입 지속.



결론: 극단적 방향성 상실 상태. 철저한 방어와 헷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하는 구간.

오늘의 액션 플랜 (Strategic Playbook): 방어력 극대화 및 헷지 전략

[한국 시장]

방어형 포지셔닝 및 현금 확보

📊 **전략:** 대기 자금 고갈 및 지수
왜곡 심화로 공격적 매수 자제.

📈 **액션:** 현금 비중 적극 확대 및
고배당/가치주 중심의 방어형
ETF로 포트폴리오 재편. 코스닥
한계 기업 접근 절대 금지.

[미국 시장]

옵션 및 ETF를 활용한 헷지

📈 **전략:** 스페이스X 등 슈퍼워크
실적에 따른 개별 종목 변동성
대비.

📈 **액션:** 나스닥100 담고 콜옵션
매도하는 **커버드콜 전략** 등
초과수익 획득보다 수익률
방어에 전면 집중.

[매크로 대응]

달러 압박 대비 실물/대체자산 편입

🏠 **전략:**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
리스크 동시 발생(스태그플레이션
우려)에 철저히 대비.

📈 **액션:** 온스당 4,000달러 선을
지키고 있는 **금**과 강력한 유입이
일어나는 **비트코인**을 포트폴리오
헷지 수단으로 적극 매수.